

Moxifloxacin-induced hypersensitivity syndrome

동아의대 내과¹, 진단방사선과², 해부병리과³, 흉부외과⁴

*김혜인¹ · 서효림¹ · 김보경¹ · 허정훈¹ · 양두경¹ · 이수걸¹ · 손춘희¹ · 김기남² · 이기남² · 노미숙³ · 최필조⁴ · 방정희⁴

Moxifloxacin is a fluoroquinolone antimicrobial agents with proven efficacy against community-acquired respiratory pathogens. Common adverse effects associated with its use include gastrointestinal symptoms, such as nausea and diarrhea. However, for the best of our knowledge, moxifloxacin-induced hypersensitivity syndrome has not yet been reported. A 50-year-old woman was referred to our allergy department because of high fever and generalized maculopapular rash after taking moxifloxacin for 10 days due to pneumonia. White blood cell count was 4,000/mm³ without eosinophilia. Platelet count was 109,000/mm³. Liver function test revealed slightly increased GOT/GPT levels (71/46 respectively). High-resolution chest CT showed diffuse areas of 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and ground glass opacity on both lower lobes. Seven day after discontinuation of moxifloxacin without specific treatment, fever was normalized and skin lesions were improved. Chest x-ray film showed complete resolution. Intradermal skin test using 1:10 dilution of moxifloxacin (Avelox) showed positive response. This case informed us that moxifloxacin might be a new candidate for drug hypersensitivity syndrome. Key Words: moxifloxacin, Drug Hypersensitivity

한국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HLA B27 subtype의 분포와 임상적 특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류마티스 내과¹, 경희대 동서신의학 병원 류마티스 내과², 경희대학교 동서골관절 연구원³

최인아¹ · 이상훈² · 이연아¹ · 홍승재¹ · 김경수³ · 박은경³ · 정혜숙³ · 양형인²

서론 :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HLA B27이 유전적 요인 중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HLA B27 안에도 20여 가지의 subtype이 발견되어 subtype에 따른 염기서열이 달라지고 이로 인한 구조적 차이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아시안에서도 다른 인종에 대해서는 HLA B27 subtype에 대하여 보고가 많이 되었지만 한국인에게는 대규모 연구가 없어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HLA B27 subtype의 분포와 이에 따른 임상상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류마티스 내과와 경희대 동서신의학 병원에서 추적중인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여 DNA를 분리한 후 PEL-FREEZ kit (Dynal Biothec, Wisconsin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적 특징은 방문 시 직접 대면하여 확인 하였고 일부 추적이 중단된 환자의 경우에 후향적으로 차트 리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과 :** 총 193명의 환자들에게 subtype을 시행하였다. 남성이 162명(83.9%), 검사 당시 평균연령은 31.8±8.7세, 질병발생 평균연령은 23.1±7.6세, 질환 유병기간은 25.9±8.5 달 이었다. 이들 환자 중 HLA B2705 type이 175명(90.7%)이었다. 환자들의 포도막염 과거력이 있었던 경우가 23명(12.4%)였으며 말초관절 침범 경우가 65명(35.8%)이었다. 말초관절은 고관절과 견관절을 제외한 원위관절 들로 정의하였다. 이들 환자에서 항류마티스 약제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의 IgA 혈청 level을 확인하여 비교하였고 subtype 별로 임상적 차이 여부를 분석하였다. 포도막염과 말초관절 침범 여부는 subtype의 차이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외에도 질환의 발생연령, 성별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혈청 IgA level은 2705 type이 평균 355.3±130.4 mg/dL, 2704 type이 평균 254.9±150.0 mg/dL로 두 군간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0.042). **결론 :** 한국인의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대다수가 HLA B2705 type 이었으며 이들 환자에 있어서 혈청 IgA level이 HLA B2704 type을 가진 환자보다 더 높았으며, 이 결과는 subtype에 따라 병을 일으키는 specific antigen이 다르고 이로 인해 임상 양상도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 IgA population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